

아들과 함께 한 포르투갈 여행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12일 한국을 출발해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3년에 걸쳐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에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엘리바도르 산타 후스타 전망대에서 바라본 리스본 구시가지. 가운데 광장이 로시우 광장이다.

아빠, 공부 좀 해!

“아빠, 공부 좀 해!” 필자와 고3에 올라갈 나이였던 둘째 아들의 포르투갈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해 숙소에 여장을 푼 다음, 시내로 향할 때 아들이 거칠게 대들었다. 여행 코스를 자신에게 맡기고 졸졸 따라오며 질문만 하는 아빠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다.

“아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따라다닌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

“아빠도 책을 봤는데, 복잡한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

“그건 기본적인 거지. 응? 베이징에 가서 자금성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아빠가 공부하면서 여행하라며? 아빠는 공부 안 해?”

거칠게 대드는 둘째가 한편 껄껄하고 버릇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허허, 많이 컸다 이거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그때 우리는 아내와 첫째 아들을 포함해 온 가족이 세계 일주 여행에 나선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였고, 당시 모습에 처음 여행에 나섰을 때와 달라도 너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6개월 전 중국에 첫발을 디딜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필자와 아내가 여행 일정을 잡고, 숙소나 식당도 정해서 끌고 다녀야 했다. 한자를 이용한 필담과 더듬거리는 영어로 일일이 통역해서 알려주어야 했다. 하지만 네팔과 인도까지 아시아에서 3개월, 터키에서 그리스,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대륙을 3개월간 시계방향으로 누비면서 아이들이 여행의 주역으로 나서기 시작

했다. 특정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이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여행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포르투갈의 ‘가이드’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가 아빠의 소극적인 태도에 격하게 반발한 것이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아빠도 노력할게.” 애써 아들을 달래야 했다.

아들과의 냉랭한 기운은 조금 더 지속되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다. 리스본의 약간 덜 개발된 듯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금세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포르투갈은 어떤 나라인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던 시기, 중남미 대륙을 호령하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나라 아닌가. 더구나 리스본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둘째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 아닌가. 아내와 첫째가 산티아고로 가자고 할 때도 둘째는 리스본으로 가겠다고, 대항해 시대의 유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던 곳 아니었던가.

18~19세기의 풍모를 간직한 리스본

실제로 리스본은 멋진 곳이었다. 이미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그리스와 이탈리아, 프랑스의 유적을 6개월 동안 질리도록 돌아보았던 우리의 눈에도 리스본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리스본 시내를 돌아볼 수 있는 엘리바도르 산타 후스타 철제 전망대에 오르자 리스본 전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저 아래 쪽이 바이샤 지구고, 이쪽 높은 곳은 바이루 알투 지구래. 이 탑은 30m인데, 파리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이

Portugal

1902년 설계했다.” 아들이 가이드북을 보면서 설명했다. 그가 가이드의 본분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하, 그렇구나. 저 건너편에 있는 게, 음, 상 조르제 성이고, 저 아래가 테주 강. 하하하.” 내가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는 다시 여행자 모드로 돌아갔다. 세계를 주름잡던 전성기를 뒤로한 배우의 화려하진 않지만 우아한 자태를 보는 것 같았다. 건물들은 대체로 5~6층 높이로,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고풍스러운 멋을 풍겼다. 건물들의 흰 벽과 그것을 덮고 있는 적갈색 지붕이 하늘에서 무차별적으로 내리쬐는 투명한 햇살에 속살을 드러냈다. 그 뒤로 바다처럼 넓은 테주 강 하구가, 시가지 너머 언덕엔 상 조르제 성이 버티고 있었다.

주요 볼거리들은 중심광장인 로시우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에 밀집해 있어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었다. ‘땡! 땡! 땡!’ 경적을 울리며 천천히 지나가는 노란색과 빨간색 트램을 타기도 했다. 마치 18~19세기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로시우 광장과 테주 강변의 코메르시우 광장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8~12세기 이곳을 지배했던 북아프리카 이슬람 세력이 건설한 성 조르제 성은, 성의 웅장함도 그렇지만, 거기서 바라본 리스본은 환상적이었다. 성벽을 따라 구비를 돌 때마다 풍경이 달라졌다. 태양이 서녘으로 누엠투엠투 기우는 가운데 흰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하늘과 건물들의 붉은 지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아들과 아이스크림을 핥으면서 10년 후 다시 오고 싶은 도시를 꼽으라면 리스본을 꼽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유라시아의 대륙의 땅끝에 서서

필자와 둘째 아들은 1주일 동안 포르투갈을 여행했다. 리스본에서 출발해 대학도시 코임브라, 15~16세기 선박 건조와 해상무역의 거점이자 오늘날 포르투갈 제2의 도시인 포르투까지 돌아보았다. 포르투갈 여행의 필수코스다. 코임브라는 유럽에서 가장 긴 700년의 역사를 지닌 코임브라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로, 낭만과 평화, 여유가 넘쳤다. ‘공부는 코임브라에서 하고, 돈은 리스본에서 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아들이 가이드북에서 발견하고 어렵게 찾아간 콘데(Adega Paco

로까곳에서 필자와 둘째 아들. 아들의 머리가 길게 자라 6개월 동안 여행한 ‘티’를 넣고 있다.



리스본의 명물 트램. 지금도 여행객들과 주민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de Conde) 식당의 요리는 잊을 수가 없다.

포르투는 ‘대항해 시대’의 거점 도시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랜드마크인 끌레리구스 타워, 쌍둥이 성당인 까르무 성당과 까르멜리타스 성당,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랠로 서점, 불사 궁전, 카테드랄 등 다 열거하기 어려운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45m 깊이의 협곡을 이루며 흘러가는 도루 강과 강변의 대규모 와이너리, 지금은 관광객을 위한 식당과 숙소, 노천카페로 바뀐 과거 상인들의 숙소 및 주거지의 풍취도 잊을 수가 없다. 포르투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인 로까곳, 까보 다 로까(Cabo da Roca)다. 우리도 기차를 타고 신트라에 내려 모루스 성과 페나공전을 돌아본 다음 다시 버스를 타고 40분 달려 로까곳에 도착했다. 로까곳에는 “여기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는 포르투갈 국민시인 까몽이스의 시귀가 새겨진 돌탑과 등대가 대서양을 건너온 바람을 의연히 맞고 있었다. 망망대해가 펼쳐졌다. 대륙을 건너온 우리에게도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아들은 혼자서 해안으로 이어진 언덕을 따라 계곡을 넘어 한참을 돌아다녔다. 아주 멀리까지 걸어가 그의 모습이 사야에서 사라졌다.

과연 그곳이 땅 끝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대륙의 끝이다!” 하고 외치며 발길을 돌렸지만, 호기심과 모험심이 넘치는 사람들은 망망대해를 향해 뜻을 올리고 배를 띄웠다. 그들엔 대륙의 끝이 아니라 신대륙으로 향하는 출발점이었다. 우리에게도 그러했다. 포르투갈을 여행하면서 아들은 혼돈을 거듭하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모종의 결단을 내렸다. 새로운 출발의 땅이었다.

가족과의 여행, 특히 성장기 아이들과의 여행은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게 된다’는 말처럼 가족 구성원 각자가 독립적인 주체로 있다. 부모가 모든 일정을 짜고 아이들이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유적이라도 결만 보게 되는 것이다. 포르투갈 여행을 시작할 때 “아빠, 공부 좀 해!” 하고 아들이 대든 것은 그가 부모의 벽을 뛰어 넘어 독립적인 인격체로 나아가는 신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러했기에 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포르투갈의 선조들이 대륙의 끝에서 새로운 항해의 뜻을 올렸듯이, 우리에게도 포르투갈은 새로운 가족관계의 출발점이 된 뜻 깊은 곳이었다.